

# 부산시, 전력반도체 생산거점 도약 위한 밑그림 본격화

동남권방사선과학 산단 점검  
안정적 전력공급·진입도로 개설  
추진단 구성해 로드맵 등 마련

부산시가 차세대 전력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생산거점으로 도약을 추진한다.

부산시는 11일 기장군 파워반도체 상용화센터에서 박형준 시장 주재로 '전력반도체 현장방문 연계 주간정책회의'를 열고 차세대 전력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력반도체는 반도체 웨이퍼 소재로 기존 실리콘 대신 탄화규소(SiC) 질화갈륨(GaN) 등을 사용해 고온에 강하고 전력손실이 적은 반도체다. 전기차·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쓰여 차세대 반도체로 불린다.

시는 이번 주간정책회의를 통해 현재 직면하고 있는 현안들을 점검하



파워반도체 상용화센터.

고, 부산이 전력반도체 생산 거점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묘안을 찾는다.

시는 지난 2017년부터 동남권방사선과학 산단단지에서 전력반도체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해 지원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부산이 전력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로 선정됐다. 이를 통해 '고성능 화합물 전력반도체 생태계'를 부산을 중심으로 조성할 수 있게 됐다.

회의에서는 전력반도체 산업클러스터, 중입자가속기 구축, 수출형 실험연구로 등 부산의 미래 먹거리 사업이 집적화된 동남권방사선·과학 일 반산업단지 현황을 점검하고, 안정적 전력공급 방안, 진입도로 개설, 유치 기업 수요에 대응할 추가 부지 확보 등 산단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앞으로 부산형 전력반도체 산업 육

성 전략, 파워반도체상용화센터 발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면서 향후 대한민국의 전력반도체 생산거점이 될 부산의 반도체 산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밑그림을 그려 나갈 계획이다.

시는 소부장 특화단지 활성화를 위한 추진단을 구성하여, 이를 통해 부산 특화 '반도체산업 생태계 조성' 로드맵 마련, 고성능 화합물 전력반도체 전주기 기업 지원시스템 구축, 전력·가스공급·용수 등 기반시설 확충,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한 기업 유치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전기차 등 수요 증대에 따라 전력반도체 시장은 갈수록 확대될 것"이라며 "우리 부산은 전력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전력반도체 핵심기술 자립을 통한 국내 공급망을 확보해 기업 생태계를 완성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김영찬 기자

metrobusan3@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안동시

### 현대 인문가치 모색·공유 나서

문화체육관광부·경북도·안동시 주최(재)한국정신문화재단 주관인 '제10회 21세기 인문가치포럼'이 안동국제컨벤션센터에서 10월 27~29일 개최된다.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21세기 인문가치포럼은 2014년 제1회를 시작으로 매해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해 현대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문가치를 모색·공유하며 보다 나은 삶과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해왔다.

이번 포럼에서는 '인간다움, 우리는 누구인가'를 주제로 오늘날 인간다움과 삶에 대한 질문을 던져, 가치와 의미를 새로운 차원에서 회복하기 위한 성찰과 논의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안동(경북)=장영우 기자 ycyw57@

부산시

### 친환경 교통주간 운영 나서

부산시는 세계 차 없는 날(9월22일)을 기념해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친환경 교통주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친환경 교통주간은 자가용 자동차 이용에 따른 기후위기 심각성을 인식하고,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부산시의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 기준 611만t으로 이는 전체 배출량의 25.3%를 차지하고 있다. 시에 등록된 자동차(2023년 7월 기준)의 총 대수는 151만6443대로, 이중 자가용은 134만542대다.

/부산=이도식 기자

산청군

###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 1억 돌파

산청군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이 1억원을 돌파하며 목표액을 초과 달성했다.

11일 산청군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8개월 만에 기부금이 1억원을 넘어섰다.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모금액은 1억 600만원으로 1300명이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했다.

지역별 기부자로는 경남 1018명(76%), 전남 161명(12%), 부산 49명(3%), 서울 27명(2%), 경기 26명(2%) 등으로 경남지역이 가장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50대와 40대가 각각 30%, 22%로 가장 많았고 60~70대 이상 기부자들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산청(경남)=이도식 기자

남해군

### 남해화폐 화전 특별판매 진행

남해군은 9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화전 사용하Go·명절·축제 즐기Go·남해경제 살리Go'란 테마로 남해화폐 화전(花錢) 특별판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판매 기간에는 지류와 카드에 한하여 통합으로 월 10만원의 개인 구매 한도를 월 20만원으로 확대 발행한다.

9월에 이미 10만원을 지류나 카드로 구매한 이는 추가로 10만원을 구매 할 수 있으며 아직 구입하지 않은 이는 20만원 구매가 가능하다. /남해(경남)=이도식 기자

## 전남도,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연구개발 예산 191억... 402% 증액

(전년비)

총사업비 기준 4140억 확보  
AI융합지능형 농업 등도 반영

전남도가 내년도 신규 연구개발 국비 예산을 대거 확보하면서 '미래 전략산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2024년 정부 신규 연구개발(R&D) 예산이 전년보다 153억 원 증가한 191억원이 반영됐다. 총사업비 기준은 전년보다 3876억 원 늘어난 4140억 원을 확보했다.

이로써 전남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연구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지난달 발표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연구개발 예산이 16.6%로 가장 많이 삭감됐지만 전남도 신규 연구개발 예산은 오히려 전년보다 402% 증액되는 성과를 거뒀다.

주요 반영 신규사업은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 10억원', '우주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 구축 15억원', '웹타이드 핵심기술 개발·검증 사업 14억원', '초소형 전기차 플랫폼 수요



지난 5월 25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한국형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발사되고 있다. /항우연

연계형 부품 기술개발 10억원', '전기자동차 주요 부품 재제조 기술개발 40억원' 등이다.

또 '인공지능(AI)융합 지능형 농업 생태계 구축 31억원', '비행성능 시험장 안전성 확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18억원', '혁신 신약소재물질 사업화 비임상 핵심 실증 지원 13억원' 등도 반영됐다. /전남=양수현 기자 ysn6313@

## 여수시서 해양미래 위해 세계인 모인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 세계 총회

만과 해양의 미래 비전을 위해 세계인이 머리를 맞대는 자리가 여수에 마련된다.

여수시에 따르면, 오는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여수에서 '제17차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 세계총회'가 개최된다.

이번 총회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 협회(이하 세계만협회)'가 매년 개최하는 연차회의로 해양의 보호와 보전, 그리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전 세계인의 지혜를 모으고, 회원국 간의 교류와 협력을 다지는 자리다.

세계만협회는 전 세계 21개국 43개 도시가 회원으로 가입한 국제협회로, 본부는 프랑스 반(Vannes) 시 청사 내에 위치해 있다.

## 창원시, 수산물 전용 모바일 상품권 발행

추석 앞두고 선제적 대응

경남 창원시는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수산물 전용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 수산물 소비가 둔화된 가운데 추석을 앞둔 수산물 업계의 타격이 우려되자 수산물 전용 모바일 상품권 20억원을 오는 13일 오전 9시와 11시, 2회에 걸쳐 발행한다.

정부 발행을 제외하고 지자체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창원시가 처음이다. 이번 추석이 하반기 지역 상권의 빠른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한 것이다.

모바일 상품권은 5000원권, 1만원권, 5만원권, 20만원권 등 네 종류로

여수시는 국내 유일한 만협회 회원으로 지난 2009년 가입했으며, 2014년에는 제10차 아름다운만 세계총회를 개최한 바 있다. 제10차 세계총회 직후 '아름다운 여수만 협회'를 설립해, 현재 36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이번 총회의 주제는 '만과 섬의 가치를 잇다'다. 여수시가 추진하는 '여수만 르네상스 중장기 발전계획'과 맞닿고 더 나아가 오는 2026여수세계세박람회와도 연관됐다. 이번 총회를 바라보는 여수시의 시선이 각별하고 기대가 클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이번 총회가 우리 여수의 만과 섬의 비전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수(전남)=전진신 기자 spirit@

제공된다.

상품권은 비플래이 어플리케이션 등에서 살 수 있다. 구매 시 15% 할인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20만원권은 17만원, 5만원권은 4만2500원, 1만원권은 8500원에 살 수 있다. 개인당 최대 20만원까지 구입할 수 있다.

상품권은 지역 전통시장(29개)의 497개 수산물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용처는 창원시 홈페이지 시정소식 알림마당 새소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규 수산물 가맹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제로페이 고객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창원 수산물 모바일 누리전은 정부에서 발행한 수산물 제로페이 상품권과 병행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창원(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 대구시, 취업준비 청년에 지역기업 소개

취업박람회 '단디JOB자! 페스티벌'

대구광역시에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청년에게 지역의 우수기업을 알리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오는 9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DGB 대구은행 제2본점에서 취업박람회 '단디JOB자!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취업박람회는 대구광역시가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지역문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민간,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 구

성된 협업체계 플랫폼)을 통해 한국 산업단지공단과 공동으로 주관하고, DGB금융그룹의 후원과 한국부동산원, 한국장학재단이 공동 협찬한다.

본 행사는 고용친화기업 및 가족친화인증기업,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NGO 단체 등 지역 우수기업 46개사가 참여하며, 보수, 근무환경, 직무의 세부적인 내용 등 양질의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현장 면접을 통한 채용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대구=김상복 기자 ksb8100@